

#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 The Relations of Children's Stres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최 미 경

Department of Child and Human Development, Duksung Women's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Mi-Kyung Choi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tres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with a sample of 320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of which 161 were boys and 159 were girls) living in Seoul.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Children's stres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s. It was observed that children's stress of studying/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Children's self-esteem was positively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Children's stress of studying/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self-esteem. Self-esteem tended to play a perfectly mediating role between children's stress of studying/mother and subjective well-being.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children's self-esteem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 levels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주제어(Key Words) :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스트레스(stress), 자아존중감(self-esteem)

## I. 서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나 행복감, 만족감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특성인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Szalai, 1980)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은 최소한 두 개의 일반적인 측면, 즉 정서적 안녕감인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와 인지적 안녕감인 생활 만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Campbell, Converse, & Godgers, 1976;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다시 말해 주관적 안녕감은 많은 긍정적 정서와 적은 부정적 정서, 그리고 높은 생활 만족도를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면인 주관적 안녕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것은 사회적으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과거에는 주로 인간 심리의 부정적이고 병적인 측면들을 평가, 진단하며 연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실제로 아동의 안녕감에 대해 조사할 때 아동이 지닌 긍정적 측면보다도 우울이나 불안 등과 관련된 심리장애, 정신병리, 문제행동과 안녕감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이영자, 1995; 임자성, 2002). 그러나 최근에는 안녕감과 관련하여 긍정적 정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한덕웅, 표승연, 2002),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가 적응적인 행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언하고(Watson & Clark, 1984), 높은 성취동기와 효율적인 과제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Taylor & Brown, 1988). 한편, 안녕감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노인이나 성인의 안녕감에 관심을 두다가 차츰 청소년기에서 아동기로 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동 심리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 되어온 변인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아동은 대개 부모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혹은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이소현, 2009;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8). 스트레스는 대개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이나 압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이소현, 2009)으로 지나친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 불안이나 불만, 걱정, 짜증, 긴장, 고통,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명선, 김광웅, 2001). 실제로 초등학교 2, 4, 6학년들을 대상으로 아동

의 행복감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조성연 외, 2008)에서는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들(92.7%)이 학교 수업 후 각종 활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외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행복감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5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753명을 대상으로 과외학습 스트레스 상집단(상위 25%)과 과외학습 스트레스 하집단(하위 25%)으로 각각 190명씩 분류하여 아동의 심리적 특성인 학업 자아개념, 사회적 지지, 우울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임자성, 2002)에서도 과외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 자아개념과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이 부모의 요구로 과외활동과 시험 등에 노출되며 이러한 성취를 강요하는 활동들로 인해 아동의 안녕감이 위협받고 있고 긴장이나 걱정, 부담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결과와도 관련되어,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분, 근육긴장 등 신체적 변화와 분노나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등 심리적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최미경, 조용래, 2005).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정서적 적응, 심리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 나아가 아동기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무력감, 불안, 긴장 등을 야기 시켜 아동기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Elkind, 1983; Youngs, 1995). 국내 연구결과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감을 훨씬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김정희, 1987; 신재은, 1998; 이영자, 1995; 임자성, 2002),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한미현, 1996).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히 관련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정서인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업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주관적 안녕감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아동의 스트레스 이외에도, 주관적 안녕감은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로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 성격변인들 중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개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의 가장 신뢰로운 예측 변인이며(차경호, 2001; 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 또는 주위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Mayer & Diener, 1995)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Campbell, 1981; Diener, 1994). 즉,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주관적 안녕감 수준도 높게 지각하였다(Lucas, Diener, & Suh, 1996). 실제로 49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Diener & Diener, 1995).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과 성별, 우울/불안, 자아존중감, 낙관성, 스트레스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Garmezzy, 1993; Masten & Coatsworth, 1998; Pollard, Hawkins, & Arther, 1999; Rutter, 1987; Werner, 1989; Werner & Smith, 1987).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도인중, 2006; 이정미, 2006; 최윤정, 2007), 이 연구들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나 부모의 양육 등 환경적 맥락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적 행복감, 만족감인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밖에,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박소영, 문혁준, 2005; 설남경, 2000; 이지연, 2002)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아동 자신이 이를 통제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믿음이 약화되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신기명, 1996).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기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하며, 반대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지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된다(박정희, 1989)는 것이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관계와 교우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김경자, 1994),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보다 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중혜, 1994).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동이 자아를 부정적으로 자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renner, 1984). 특히, 한국아동이 미국아동에 비해 자기지각이 낮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이영환, 한중혜, 박성욱, 1998), 이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부정적으 지각하고 있으며 스트레

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은 교사의 편애, 월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부모나 교사의 과잉기대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아존중감이 저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영자, 박성욱, 양명숙, 1997).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소수가 보고되나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는 아동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이 큰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관적 안녕감이 위협받을 수 있다(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약화시키며 반대로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Diener et al., 1999; Mayer & Diener, 1995). 아동의 스트레스는 인성특성의 하나인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것이며(박소영, 문혁준, 2005; 이지연, 2002), 낮은 자아존중감 또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김경자, 1994). 위와 같이,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Schimmack & Diener, 2003) 스트레스의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발생시키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일상적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더 많이 우울해진다는 보고도 있다(최미례, 이은혜, 2003). 또한, Logan(1989)는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변화에 대해 적응적이라고 하였다(Harter, 1990). 국내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회피적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보고가 있다(이명순, 1994). 즉, 자아를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인이 된다(김정희, 1987). 즉, 아

동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연구문제2>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연구문제3> 아동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4>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J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320명의 남녀 아동(남아: 161, 여아: 159)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학령기 말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부담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시기 아동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 볼 때,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으로(Piaget, 1932), 효능감, 자존감, 지지감 등에 관한 자기평가가 가능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느낌을 스스로 지각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Morris & Nemcek, 1982; 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본 연구대상자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213명(65.7%)과 175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36.1%, 500만원 이상이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161명(49.7%),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200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아동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에 의해 평가되었다.

#### 1)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Rowilson과 Felner(1988)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Daily Hassles Questionnaire (DHQ)와 Dohrenwend와 Shrout(1985)의 Hassles Dimensions,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 국내 선행연구들(류수영, 1994; 천민필, 1993; 한미현, 1993)을 기초로 한국 아동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본 척도는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 주변 환경 관련 요인 등 총 6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8문항)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7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대부분이 부모와 학업 관련된 요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으며(김수빈, 2008;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이소현, 2009; 조성연 외, 2008)에 근거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주로 어머니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나는 어머니가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 불만이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등으로 어머니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나는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나는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 활동이 많아 힘들다' 등으로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와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87, .84였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변안한 박선영과 도현심(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서 본 분석에 사용된 10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77이었다.

3) 주관적 안녕감 척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박병기와 송정화(2007)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 하위요인(정적 효능 안녕감, 정적 정서 안녕감, 정적 관계 안녕감, 부적 효능 안녕감, 부적 정서 안녕감, 부적 관계 안녕감) 중 긍정적 요인의 효능 안녕감, 정서 안녕감, 관계 안녕감을 측정하는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보다 적응적 행동 예언에 효율적이라는 점(Watson & Clark, 1984)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 요인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효능 안녕감은 '일단 일을 맡으면 제대로 해낸다', '어려운 과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정서 안녕감은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삶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관계 안녕감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원 척도의 형식은 '확실히 아니다', '상당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의 6단계 Likert식이었으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보다 명료한 응답을 얻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효능 안녕감, 정서 안녕감, 관계 안녕감이 각각 .77, .92, .71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4월에 서울시 N구에 위치한 J 초등학교 5학년 교사들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들은 학급에서 적절한 시간을 택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40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97.14%) 이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32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델을 기초로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관련 스트레스: 효능 안녕감:  $r = -.22, p < .01$ , 정서 안녕감:  $r = -.47, p < .01$ , 관계 안녕감:  $r = -.25, p < .01$ / 학업 관련 스트레스: 효능 안녕감:  $r = -.21, p < .01$ , 정서 안녕감:  $r = -.47, p < .01$ , 관계 안녕감:  $r = -.14, p < .05$ ) (표 1). 즉,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혹은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유능성이나 정서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안녕감 및 대인관계에 관한 안녕감이 낮았다.

〈표 1〉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N = 320)

	효능 안녕감	정서 안녕감	관계 안녕감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22**	-.47**	-.25**
학업관련 스트레스	-.21**	-.47**	-.14*

\*\* $p < .01$ , \* $p < .05$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유능성이나 정서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안녕감 및 대인관계에 관한 안녕감을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효능 안녕감:  $r = .51, p < .01$ , 정서 안녕감:  $r = .56, p < .01$ , 관계 안녕감:  $r = .44, p < .01$ ) (표 2).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N = 320)

자아존중감	효능 안녕감	정서 안녕감	관계 안녕감
	.51**	.56**	.44**

\*\* $p < .01$

3.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표 3〉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N = 320)

	자아존중감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41**
학업관련 스트레스	-.49**

\*\*p < .01

간에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어머니 관련 스트레스:  $r = -.41, p < .01$ , 학업 관련 스트레스:  $r = -.49, p < .01$ )(〈표 3〉),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혹은 학업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 4.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이상에서와 같이, 아동의 어머니,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어머니,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표 1〉, 〈표 2〉, 〈표 3〉). 이처럼 세 개의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는 Baron과 Kenny(1986)가 지정한 어느 한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먼저, 종속변인인 효능 안녕감에 미치는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력( $\beta = -.22, p < .001$ ;  $\beta = -.21, p < .001$ )은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효능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효능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약 26%였다. 또한 종속변인인 관계 안녕감에 미치는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력( $\beta = -.20, p < .001$ ;  $\beta = -.14, p < .05$ )은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관계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약 20%였다(〈표 4〉, 〈표 5〉). 그러나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정서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과외활동이나 학업부담감 등으로 인해 스트레

〈표 4〉 아동의 효능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N = 320)

독립변인	B	$\beta$
<b>스트레스</b>		
어머니/학업 관련스트레스	-.01/.04	-.01/.05
<b>자아존중감</b>	.58/.61	.50***/.53***
$R^2$	.26/.26	
F	55.28***/ 55.85***	

\*\*\*p < .001

〈표 5〉 아동의 관계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N = 320)

독립변인	B	$\beta$
<b>스트레스</b>		
어머니/학업 관련스트레스	-.07/.07	-.08/.10
<b>자아존중감</b>	.49/.59	.40***/.49***
$R^2$	.20/.20	
F	38.90***/ 39.41***	

\*\*\*p < .001

스 발생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다. 즉,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혹은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아동 자신의 유능성 혹은 정서를 긍정적으로 느낌으로써 얻게 되는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관한 안녕감이 모두 낮았다. 이는 아동은 학업이나 가정환경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인성, 2004; 정춘자, 2004; Youngs, 1995)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지고(Lazarus & Folkman, 1984) 정서적으로 부적응하며(Compas, 1987) 우울감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김정희, 1987; 신재은, 1998; 이영자, 1995)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한미현, 1996)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발달과정 상에 있는 아동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서적 적응, 심리적 안녕감(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 그리고 행동발달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청소년기의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 1992) 및 최근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수가 증가한다는 보도(통계청, 2008)에 근거할 때,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 자신의 유능성 및 긍정적인 정서성에 관한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관한 안녕감이 모두 높았다. 이것은 주관적 안녕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중요한 개인의 특성들 중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라는 연구결과(Lucas, Diener, & Suh, 1996)와 일치한다. 행복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하고(Cheng & Fumham, 2004),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Diener et al., 1999; Mayer & Diener, 1995),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Campbell, 1981; Diener, 1984)는 연구결과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의 가장 신뢰로운 예언변인들의 하나라는 연구결과들(차경호, 2001; 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사고과정, 감정, 욕망, 가치관, 목표 및 행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복과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므로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동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이것은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박소영, 문혁준, 2005; 설남경, 2000; 이지연, 2002)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이 증진된다(한미현, 1996)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므로 아동의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을 평가하기 쉬운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느낄 때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쉬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업부담이 커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성적이나 공부에 관한 스트레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평생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부모나 학업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낮아진다는 결과는 아동기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동시에 교육환경에서 성적 보다는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Campbell, 1981; Diener, 1994; Diener et al., 1999; Mayer & Diener, 1995), 아동의 스트레스와도 관계가 있다는 결과들(박소영, 문혁준, 2005; 설남경, 2000) 및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Ca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에 근거하여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효능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아동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효능감에 관한 주관적 안녕감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효능 안녕감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효능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Schimmack & Diener, 2003)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차경호, 2001)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높은 동기를 지닌다(Pearlin & Schooler, 1978; Taylor & Brown, 1988; Zuckerman, 1989)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관계 안녕감과의 관계에서도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관계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관계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며 감소된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김병희, 2006) 및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Logan, 1989)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일상적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Campell, Chew, & Scratchley, 1991),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관계적 안녕감이 손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위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아동의 효능 및 관계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성장기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심리적인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아동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 안녕감을 느끼며 사는 삶을 위해 심리적 발달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경험하는 행복감간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케 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덜 하지만, 아동의 스트레스 역시 궁극적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학업적 부담과 어머니의 강압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자녀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아동의 안녕감 등의 모든 변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관찰법, 면접법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이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 등을 아동이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는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를 어머니의 평가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아동과 어머니가 경험하는 지각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인식의 차이 확인을 통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변인인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양방향적이라는 문헌고찰을 고려해 볼 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괴외활동과 학업 등

으로 부담감이 증가하는 시기인 아동기 후기에 스트레스 관리와 아동의 행복감 향상에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차후 아동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등 세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동의 스트레스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재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참고문헌

- 강영자, 박성옥, 양명숙(1997). **아동의 스트레스**. 경기도: 양서원.
- 강인성(2004). 초등학교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수자, 한구석, 이은희(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743-770.
- 김경자(1994). 아동의 자기 역량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희(2006). 중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 및 자아 존중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빈(2008). 아동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적응.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주(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도인중(2006). 초등학교생의 낙관적 설명양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수영(1994).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기, 송정화(2007). 주관적 안녕의 2×3 다차원 요인구조.

**교육심리연구**, 21(3), 591-611.

박선영, 도현심(2001).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1.

박소영, 문혁준(2005).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탐색. **대학가정학회지**, 43(9), 71-84.

박정희(1989). 아동의 우울성향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설남경(2000).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기명(1990). 학습 무기력척도 개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재은(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진아(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기대 및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명순(1994). 여고생의 스트레스, 자아지각 및 대처방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소현(2009).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및 주관적 안녕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영환, 한중혜, 박성옥(1998).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한국아동과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2), 73-86.

이정미(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지연(2002).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와 학교사회사업 서비스욕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자성(2002).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춘자(2004).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2008). 한국의 아동은 행복  
한가 - 전국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9-81.

차경호(1994). 자아존중감 및 여가활동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여가학연구**, 2(2), 27-38.

천민필(199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명선, 김광웅(2001). 실직과 비실직가정 아버지의 부적응 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59-68.

최미경, 조용래(2005). 생활 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 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81-298.

최미래, 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최윤정(2007). 변화신념, 압력신념, 학업성취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2008). **사교육비조사**. 서울: 통계청.

통계청(2008).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 조사**. 서울: 통계청.

한덕웅, 표승연(2002).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적 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03-427.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한중혜(1994). 아버지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 및 우울성에 관한연구. **인간발달연구**, 1(1), 85-99.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Campbell, A.(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Cheng, H., & Fumham, A.(2004).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prediction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921-942.
- Compas, B. E., & Wagner, B. M.(1991). *Psychosocial stress during adolescence: Intra pers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M. E. Colten and S. Gote (Eds.), *Adolescent Stress* (pp. 67-85). N. Y. : Aldine.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ai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n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ohrenwend, B. S., & Shrout, P. E.(1985). "Hassl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variables. *American Psychologist, 40*, 780-785.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o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ai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lkind, D.(2001). *쫓기며 자라는 아이들*. 김용미(역). 서울: 학지사. (1981년 원저발간)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arter, S.(1990). *Ist in the asse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 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bistort*. Allyn and Bacon.
- Larson, R., & Asmussen, L.(1991). *Anger, worry, and hurt in early adolescent: An enlarging world of negative emotion*. In M. E. Colten & S. Gote (Eds.), *Adolescent stress* (pp. 21-42), N. Y. : Aldine.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linger Published Company.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39.
- Logan, G. D.(1989). Perceptions of control, competence, and contingency as influences on the stress-behavior symptom relation in school-age children.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1*(10). 88.
- Lucas, R. E., Diener, E., & Suh, E.(1996). Discrimina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16-628.
- Masten, A. S., & Coatsworth, J. D.(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orris, W. N., & Nemcek, D., Jr.(1982).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arison motivation among preschoolers: Evidence of a stepwise pro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8*, 413-425.
- Myers, D. G.,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earlin, L. 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ail Behavior, 19*, 2-12.
- Piaget, J.(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Pollard, J. A., Hawkins, J. D., & Arther, M. W.(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wlison, R. T., & Felner, R. D.(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432-444.
- Ruble, D. N., Boggiano, A. K., Feldman, N. S., & Loebel, J. H.(1980). Developmental analyses of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self-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05-115.
- Rutter, M.(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Masten, D. Cichetti, K.

-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mmack, U., & Diener, E.(2003). Predictive validity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2).
- Szalai, A., & Andrews, F. W.(1980). *The quality life-comparative studies*.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 Taylor, S. E., &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atson, D., & Clark, L. A.(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75-490.
- Werner, E. E.(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Werner, E. E., & Smith, E.(1987).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Y: McGraw-Hill.
- Youngs, B.(1995). **청소년 스트레스 이렇게 해결하라**. 이일남(역). 서울: 정성출판사. (1986년 원저발간)
- Zuckerman, D. M.(1989). Stress,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How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Sex Roles*, 20, 429-444.

---

접 수 일 : 2010년 7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4일